

북한산 둘레길 이용객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우현* · 윤희재* · 임승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A Study on Visitor Satisfaction for Bukhansan Dulegil

Cho, Woo-Hyun* · Yun, Hui-Jae* · Im, Seung-B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Jeju Ollegil opened in September 2007 and attracted the sensation of popularity throughout the country, the interest in 'Walking Trails' has increased, and the central ministries and the local governments composite and assign various 'Walking Trails'. Walking trails are not tours on which people go to see one spot and move to another spot by vehicle, but a long linear journey that leads people to see, to feel and to experience a region's landscape and culture while walking on the trail. 'Walking Trails' are efficient routes to discover and to use a former way and to link the various ecological regions' histories and cultural resources, so it is most important to select a route. Although the routes were selected by considering the various planning factors and giving each route a specified theme, some problems like the inconvenience of visitors caused by lack of facilities have occurred.

After design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trails, they were not properly evaluated by visitors. Therefore,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uggest a better way to construct the trails by surveying visitor satisfaction and by analyzing the impact of planning a route on visitor satisfaction at Bukhansan Dulegil which was completed.

For this study, with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o identify the important planning factors for selecting a route, a survey was conducted on visitor satisfaction for each section and their intention to revisit and to recommend that trai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ection that was identified in the field research, the trail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and satisfaction of each type and each type was analyzed. In addition, analyzing the impact of planning factors on satisfaction, the impact of satisfaction on revisiting and recommending and visitors' perception of the theme, further improvement for better construction of the trail was presented.

Satisfaction of sectors with strong natural elements was higher; 'walking comfort' was the highest planning factor affecting satisfaction. In addition, satisfaction was surveyed to have high influence on revisiting and recommending.

Key Words: Planning Factors, Questionnaire Survey,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lking Comfort

Corresponding author: Woo-Hyun Ch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2-521-1122, E-mail: serra91@empal.com

국문초록

2007년 9월 제주 올레길이 개장되고,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걷는 길’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양한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있다. ‘걷고 싶은 길’은 차량에 의한 이동과 장소 중심의 단절된 점적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걸으면서 지역의 경관 및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연속적인 긴 선적 여행길이다. ‘걷고 싶은 길’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길을 발굴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태, 역사, 문화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길로서, 노선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걷고 싶은 길’의 노선 선정 시 다양한 계획요소를 고려하고 노선 및 구간별로 다양한 테마를 부여하여 지정되거나 조성되었지만, 편의시설 부족 등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함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길 지정 및 조성 이후 이용객들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성이 완료되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노선 선정 시 고려한 계획요소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길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노선 선정 시 중요한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각 구간별 만족도, 재방문 의사, 추천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구간별 특징을 기준으로 5개의 유형으로 길을 분류하고, 구간별 만족도와 유형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계획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 및 추천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구간별 테마를 분석하였다.

구간별 만족도는 자연적 요소가 강한 구간이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계획요소로는 ‘보행쾌적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만족도는 재방문 의사 및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의사에 대하여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계획요소, 설문조사,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보행쾌적성

1. 서론

2007년 9월 제주 올레길이 개장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걷는 길’이 새로운 여행의 경향으로 여겨지면서 관심도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주제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거나 조성하고 있다.

‘걷고 싶은 길’은 차량에 의한 이동과 장소 중심의 단절된 점적 관광에서 벗어나 직접 걸으면서 연속된 지역의 경관 및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긴 선적 여행길이라 할 수 있다. ‘걷고 싶은 길’은 ‘보행’이라는 수단과 ‘관광’이라는 목적이 결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행을 통해 흥미, 체험, 감상 등을 즐길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걷고 싶은 길’은 새로운 길을 조성하는 측면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길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단절된 일부 구간을 연결하고, 주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등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방문객에게 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를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올레길에 대한 이용객 실태조사 결과, 올레길 걷기 여행이

주는 주된 매력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감상’이라고 응답하였지만,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화장실, 편의점 등 편의시설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것과 같이(제주관광공사, 2010), 방문객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개발에 따른 불편함도 공존하고 있다.

기존 길을 최대한 활용함에 따라 노선의 일부가 마을 및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볼거리, 체험거리, 흥밋거리 등이 부족하면 오히려 이용객에게 불쾌감만을 제공하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정상 정복 위주의 산행 인파를 산 아래로 분산시키고 셋길 산행과 자연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0년 8월 개장한 북한산 둘레길은 개장 100일 만에 155만 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지만, 노선의 연결을 위하여 일부 노선이 마을 및 사유지, 차도와 인접하여 통과함에 따라 이용객에게 쾌적하지 않은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걷고 싶은 길’은 새로운 길과 볼거리 등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면서 걷기 쾌적한 길을 최대한 발굴하여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대표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므로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조성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위주, 경쟁위주로 급속하게 많은 '걷고 싶은 길'들을 지정하거나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길들을 지정하거나 조성할 예정이지만 조성된 길에 대한 이용객들의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성이 완료되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각 구간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노선 선정 시 고려한 계획요소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길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개념 정의

'길'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걸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이다. 즉, '길'은 일정한 공간의 물리적 통로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인공적, 자연적, 문화적 경관을 향유할 수 있는 연결공간을 지칭한다(김상범 등, 2010).

보행 중심의 길의 개념은 길의 이용목적 및 입지 위치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용목적에 따라 등산로, 산책로, 관찰로, 탐방로 등으로 구분되고, 입지하는 위치에 따라 숲길, 강길, 해안길, 마을길 등으로 구분된다(표 1 참조).

2011년 3월 개정되어 11월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적으로는 처음으로 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길'로 정의하고 표 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2. 관련 연구의 동향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길'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생태탐방로, 탐방로, 관찰로 등과 관련하여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걷고 싶은 길' 조성 시 고려한 계획요소와 그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크게 탐방로 및 관찰로 등의 길 조성에 관한 연구와 이용객의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탐방로 등 길 조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생태문화탐방로 및 문화생태탐방로 등과 관련하여 노선선정 및 조성방안, 계획요소 도출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표 3 참조).

탐방로의 이용객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탐방로에 조성되어 있는 보행시설에 대한 만족도 연구 위주로

표 1. 보행 중심의 길 유형 및 개념

구분	개념	비고	
목적	등산로	산을 오르기 위해 만든 길로 대부분 숲속에 난 길	정취와 양병이 (2008)
	산책로	산책할 수 있게 만든 길	
	자연 관찰로	자연속을 걸으면서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더 나아가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경관, 생태계, 문화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는 길	국립공원 관리공단 (1999)
	장거리 자연 보도	자연관찰과 경관감상 등 자연의 수려함에 감동하거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직접 접하고, 자연 보호와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의 이해를 깊게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길	
자연 학습 탐방로	보도면 지형, 지물, 동식물, 자연현상 등 자연을 천천히 걸으면서 관찰하고 즐기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길		
위치	생태 탐방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좀 더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보 중심의 길'	환경부 (2007)
	숲길	산림지역 내에 형성된 등산로, 임도, 관찰로 등	환경부 (2007)
	강길	하천을 따라 주변으로 형성된 보행로나 산책로	
	해안길	해안선과 접한 주요 해안도로나 해안산책로	
마을길	농촌 마을길 또는 주요 도시의 근린공원이나 도시공원 산책로 등을 포함하는 길		

표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길의 정의

구분	정의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길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레저 스포츠길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는 길	
탐방로	산림 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자료: <http://www.moleg.go.kr>

수행되었으며(권태호, 2010; 조우 등, 2009b; 유기준과 권태호, 2004; 유기준 등, 2008), 구간 및 노선 전체에 대한 만족도 및 태도에 관한 연구로는 대구 팔공 올레에 대한 만족도 연구(심규원 등, 2010)와 지리산길에 대한 주민태도 조사 연구(조은경 등, 2009)가 수행되었다(표 4 참조).

현재까지 탐방로 등 걷는 길을 중심으로 노선선정을 위한 계획요소 도출 및 노선 선정 방안, 탐방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노선 선정 시 중요한 계획요소가 노선 전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표 3. 길 조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저자	내용
심현남 (2011)	안동시 낙동강유역의 문화경관자원을 조사하여 이를 연결하는 3개의 개략노선을 개발하고 현장답사와 평가를 통하여 최종노선을 선정
김상범 등 (2010)	6개 부처별 길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유형화하고 재분류하여 지리산 권역의 유형별 테마길 조성에 대한 연계 및 발전방안 제시
윤인용 등 (2010)	과천시를 대상으로 자연연결성(탐방자원, 연결자원)과 탐방객 접근성(거점, 주거지) 측면에서 GIS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지역 생태문화탐방로 노선선정을 위한 기법을 연구
한봉호 등 (2010)	자연자원 보전, 경관조화, 이용편의 원칙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전체 노선 63.2km, 총 11개 구간을 대상으로 28개 노선 테마 구상
이승주 등 (2009)	농촌전통테마마을에 대하여 자연자원, 식물생태, 동물생태 등의 조사를 기반으로 자원의 매력 및 조화성, 보행체계와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생태탐방로 노선 제시
전북발전연구원 (2009a)	자원의 우수성, 보행쾌적성, 자연환경보호, 네트워크 형성, 편리성 측면에서 전라북도 마실길 노선선정
전북발전연구원 (2009b)	지역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조사를 통하여 테마를 설정하고, 탐방자원요인, 테마 실현가능요인, 물리적 환경요인에 따른 중점분석을 통한 노선 제시
조우 등 (2009a)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문환경 및 자연자원 조사를 통하여 탐방로(자연관찰로와 경관감상관찰로) 조성방안 제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서울시의 생태자원을 산림자원 및 산지형 공원, 하천 및 습지, 생태공원 및 근린공원의 3개 유형에 따라 숲길, 강길, 공원길로 구분하여 생태탐방로 조성방안 제시
정휘와 양병이 (2008)	광역자원의 탐방로 계획을 위하여 노선 설정시 고려해야 할 계획요소로 환경, 자원, 접근성, 안전성, 노선, 편의시설,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13개 계획요소 도출
환경부 (2008)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시 필요한 절차, 테마설정방법, 시설구성요소 및 시설원칙, 입지 유형별 시설 모델 등의 기준을 제시
환경부 (2007)	탐방지역에 따라 국토생태탐방로의 유형을 분류하고, 환경영향 최소화 및 자연연결성 측면에서 GIS분석을 실시하여 전국 단위의 생태탐방로 노선 구상

로, 더 나은 보행 중심의 길 조성을 위해서는 만족도와 계획요소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노선 선정 시 중요한 계획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걷고 싶은 길 정책 동향

전국적인 길 조성 열풍으로 인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길을 조성 중에 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로는 환경부의 '생태문화탐방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산림청의 '산림문화체험숲길(트레킹숲길)', 국토해양부의 '해안누리길'과 '누리길', 행정안전부의 '명품녹색길', 농촌진흥청의 '그린로드' 등이 있다(표 5 참조).

표 4. 이용객 태도/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저자	내용
권태호 (2010)	가야산국립공원 해인탐방로와 백인탐방로 4개 유형의 보행 시설에 대하여 경관조화성, 자원보전성, 탐방편의성 측면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평가
심규원 등 (2010)	팔공 올레 방문객을 대상으로 6코스에 대하여 방문동기, 만족도,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조우 등 (2009b)	포항 도읍산, 춘천 안마산 숲길의 보행시설에 대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숲길 경사 등 16개 요소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 실시
조은경 등 (2009)	지리산길 조성·개발에 따른 인지도,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편익/비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에 따라 비교
유기준 등 (2008)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지역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하여 경관조화성, 자원보전성, 이용편의성 측면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평가
유기준과 권태호 (2004)	북한산과 치악산 국립공원 탐방로 관리를 위하여 탐방로 이용 행태 및 이용 관련(시설, 훼손정도 및 유형, 훼손 원인) 탐방객의 인식을 조사

이와는 별개로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09.12)에 따라 '관동팔경 녹색경관길(278.9km)'과 '섬진강 테마로드(42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청은 'DMZ트레일', 문화관광체육부는 부산광역시-강원도 고성군 구간의 동해안을 따라 국내 최장거리 초광역 동해안 탐방로인 '해파랑길(688km)'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11월 조성된 파주시의 '심학산 둘레길'과 같이 조성된 길을 비롯하여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조성에 맞춰 60km 길이의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하거나 별도로 걷기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대상지는 2010년 조성되고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함에 따라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 북한산 둘레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노선이 1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숲길, 마을길 등 다양한 유형의 길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연구의 진행

선행연구 고찰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길의 개념 정립, 걷고 싶은 길 정책 동향, 노선 선정 시 계획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걷고 싶은 길의 노선 선정은 길의 만족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 선정 시 고려한 계획요소들을 고찰하였다.

표 5. 중앙부처별 추진 중인 길의 종류 및 개념

부처	길명	개념	사업규모 및 특징	관리기관
환경부	생태문화탐방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생태적 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선정, 조성, 관리하는” 도보 위주의 길	3대 탐방권역(강길, 해안길, 숲생태길)으로 구분, 2012년까지 국가급 탐방로 1,000km 지정 및 조성	환경부, 지자체
문화관광체육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특성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의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	문화형, 생태형, 복합형으로 구분, 2009년 7개소, 2010년 10개소 선정, 2017년까지 1,200km 조성	문화관광체육부, 지자체
산림청	산림문화체험숲길 (트레킹숲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문화·역사자원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평적으로 조성하는 장거리 걷는 길	2016년까지 7개 권역 12개소 1,500km 조성	산림청
국토해양부	해안누리길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이미 개발된 바닷가 숲길, 산책로, 마을길 등 걷기 편하고 주변경관이 우수하며 해양문화·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	52개 노선 505.1km 선정	국토해양부, 지자체
	누리길	지역 주민과 도보여행자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책탐방로	10개 노선 155km 선정	국토해양부, 지자체
행정안전부	명품녹색길	지자체가 조성한 탐방로 중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고, 문화가 살아 있으며, 삶의 회노애락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길	33곳을 선정하여 5개 테마 (문학·예술, 삶, 생태·평화, 명상, 바다·강)로 구성	지자체
농촌진흥청	그린로드	다양한 농촌어메니티를 가진 마을과 마을을 이야기, 사연, 목적 등으로 이어 놓은 길로, 출발지나 도착지로 이용되는 마을의 개념을 확장하고, 동선을 테마화해 하나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농촌의 길	11개 노선 선정	지자체

자료: 부처별 정책 보도자료

http://me.go.kr, http://mcst.go.kr, http://forest.go.kr, http://mltm.go.kr, http://hmopas.go.kr, http://rda.go.kr

표 6. 선행연구에 나타난 노선 선정 시 계획요소

	탐방편의성	보행쾌적성	체험연속성	자연환경보전	접근성	기타
심현남(2011)	하이킹시설·접근로·편의시설과의 연계 편리	-	주변 경관의 특성과 질 고려	기존 탐방로에 기초, 공공대지와 넓은 사유지역 활용	교통기관	숙박시설
윤인용 등 (2010)	-	안전성	자원연결성, 자원이용	자원보호	탐방객 접근성, 연결성	-
한봉호 등 (2010)	이용편의	-	-	자연자원보전, 경관조화	-	-
전북발전연구원 (2009a)	탐방서비스에 대한 배려	보행의 쾌적성	자원의 탐방가치	자연환경보호	탐방로와의 네트워크 형성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	-	대상지 내·인접 탐방자원	-	접근 용이성	인지도
전북발전연구원 (2008)	편의성	보행쾌적성	자원의 우수성, 탐방의 연속성	자연환경보호	네트워크 형성	조성 불가능 지역
정휘와 양병이 (2008)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도로로부터의 안전성, 노선형태, 경사	자원매력 및 대표성, 자원밀도, 우수경관	생태민감지역 보호, 기존노선 활용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거점지역과의 연결성, 광역탐방로 네트워크, 주변녹지 및 보행체계와의 연결성	-
환경부(2007)	-	-	자원 연결성	환경영향 최소화	탐방객 접근성	-

선행연구에서 노선 선정 시 고려한 계획요소를 종합한 결과,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의성 측면의 요소, 노면의 폭, 경사, 재질 등 쾌적성 및 안전성 측면의 요소, 환경훼손의 최소화, 시설물의 조화 등 자연환경보전 측면의 요소, 탐방자원, 경관자원 등 체험적 요소, 대중교통과의 연계, 주변 길과의 연계성 등 접근성 측면의 요소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

탕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시 사용할 계획요소로 ‘탐방편의성’, ‘보행쾌적성’, ‘체험연속성’, ‘자연환경보전’, ‘접근성’ 5개 요소를 설정하였다(표 6 참조).

대상지 현장조사는 2011년 4월 3일, 17일, 5월 6일, 8일, 총 4일에 걸쳐 13개 구간을 직접 걸으면서 노선의 공간적 특성, 바닥포장 형태, 주변 경관자원 등을 조사하였다.

3. 설문조사

1) 설문지 구성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따라 응답자의 인식사항 4문항, 구간 및 계획요소 만족도 6문항, 테마의 인식 1문항, 재방문 및 추천 의사 2문항, 방문목적 및 만족/불만족 이유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불만족이유 항목은 계획요소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계획요소들을 종합하여 5개 계획요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방문목적 및 만족/불만족 이유는 응답자들이 중복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산 둘레길의 구간별 만족도 및 계획요소 만족도, 재방문 의사 및 타인 추천의사에 대한 조사는 7점 리커드 척도를 사용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응답자 자기 기입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시력이 좋지 않은 노령 이용객은 조사원 기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2011년 5월 29일 북한산 둘레길 13개 구간에 대하여 각 구간의 경계부 지점에서 각 구간별 30명 이상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총 415명을 조사하였다(표 7 참조).

수집된 자료는 답변이 부정확한 8명을 제외하고 407명의 자료에 대하여 코딩을 거쳐 SPSS 16.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일반적 항목에서는 빈도분석을, 만족도 항목에서는 단일 모집단 평균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만족도가 재방문의사 및 타인 추천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구간별 응답자 현황

구간	총조사	유효	무효
소나무숲길	34	31	3
순례길	34	34	-
흰구름길	35	35	-
솔샘길	32	32	-
명상길	34	32	2
평창마을길	30	30	-
옛성길	33	32	1
구름정원길	30	30	-
마실길	32	31	1
내시묘역길	31	30	1
효자길	30	30	-
충의길	30	30	-
우이령길	30	30	-
계	415	407	8

IV.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 특성

북한산 둘레길은 정상 정복 위주의 산행에서 벗어나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저지대 수평 산책로로, 2010년 8월 31일 44km 구간을 테마에 따라 1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역사와 문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표 8,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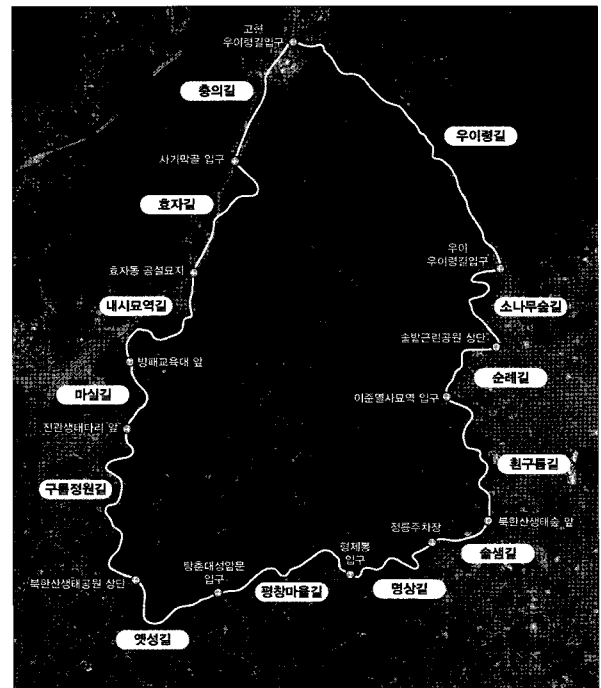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지 노선 위치도

표 8. 대상지 구간별 특성

구간	연장 (km)	공간특성	노면	주변요소	테마	
소나무숲길	2.9	공원내부	산자락	흙	수목	산림휴양
순례길	2.3	공원내부	산자락	흙	수목	역사문화
흰구름길	4.1	공원내부	산자락	흙	수목	산림휴양
솔샘길	2.1	경계부	산자락	마사토/투수콘	수목/건물	역사문화
명상길	2.4	공원내부	고개	흙	수목	자연탐방
평창마을길	5.0	공원의외부	산자락	아스콘	건물	경관조망
옛성길	2.7	공원의외부	산능선	흙	수목	경관조망
구름정원길	4.9	경계부	산자락	흙/데크	수목	경관조망
마실길	1.5	공원의외부	산자락	보도블럭	수목/건물	역사문화
내시묘역길	3.5	공원내부	산자락	흙	수목	경관조망
효자길	2.9	경계부	산자락	투수콘/흙	도로/수목	전원레저
충의길	2.7	공원의외부	산자락	투수콘	도로	전원레저
우이령길	6.8	공원내부	고개	흙	수목	자연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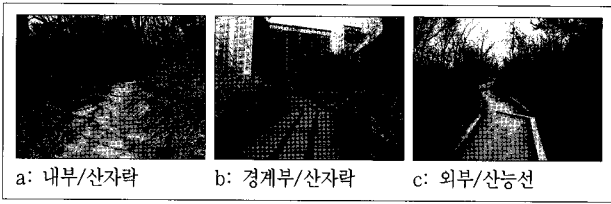


그림 2. 대상지 노선의 공간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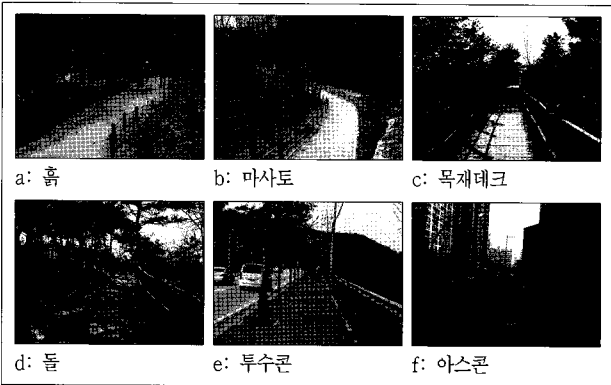


그림 3. 대상지 노선의 노면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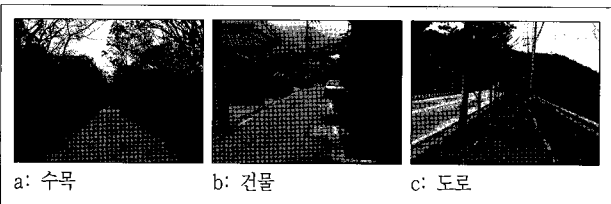


그림 4. 대상지 노선의 주변요소

대상지 구간은 노선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구간이 공원 경계 내부의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지만, 공원 경계부나 외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구간, 옛성길과 같이 산능선을 따라 이동하는 구간, 우이령길과 같이 능선 고개를 넘어가는 구간도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노선의 노면 상태는 숲속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자연 상태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을이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마사토, 목재데크, 돌 등 자연에 가까운 재료나 투수콘, 아스콘, 보도블럭 등 인공적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참조).

노선 주변의 구성요소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을을 통과하는 노선에서는 주변이 주택 등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4 참조).

2. 대상지 유형 분류

대상지 노선의 입지, 노면, 주변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13개 구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노선의 입지에 따라 내부, 경계부, 외부로 구분하고, 노면의 재질에 따라 자연, 반자연, 인공으로

구분하였으며, 주변요소에 따라 수목, 건물, 도로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13개 구간을 숲속길, 언저리길, 능선길, 마을길, 도로길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표 9, 10 참조).

‘숲속길’은 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노면이 자연 상태의 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길 주변이 수목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길이다. ‘언저리길’은 공원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면의 재질이 반자연적인 마사토, 데크 형태의 비중이 높고, 길 주변으로 수목 및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형태의 길이다. ‘능선길’은 공원 외부의 산능선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지만, 노면이 자연 상태의 흙이며, 주변요소도 수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길이다. ‘마을길’과 ‘도로길’은 공원 외부에 입지하고 있으며, 노면의 재질도 투수콘, 아스콘 등 인공적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길로, 마을을 통과함에 따라 주변요소가 건물로 되어 있는 길은 ‘마을길’, 주변이 차도로 되어 있는 길은 ‘도로길’이다.

표 9. 대상지 구간 유형 분류 기준

유형	노선입지	노면	주변요소
숲속길	내부	자연	수목
언저리길	경계부	반자연	수목/건물
능선길	외부	자연	수목
마을길		인공	건물
도로길		도로	

표 10. 대상지 유형 분류

구분	대상구간	단면
숲속길	소나무숲길, 순례길, 환구름길, 명상길, 내시묘역길, 우이령길	
언저리길	솔샘길, 구름정원길	
능선길	옛성길	
마을길	평창마을길, 마실길	
도로길	효자길, 충의길	

3.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8.7%, '여성' 41.3%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36.4%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23.6%)', '60대(12.3%)' 순으로 나타나 기존에 건강 목적으로 등산을 주로 하던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관련하여 '회사원(24.8%)', '자영업(22.9%)', '주부(19.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서울특별시'가 78.6%로 나타났는데, 서울특별시 소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는 대상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1 참조).

북한산 둘레길을 방문한 목적은 응답자에게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구간별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기 위하여(98, 12.5%)', '등산 목적으로 왔다가 우연히(91, 11.61%)', '등산은 어려워서 운동하기 위하여(90, 11.48%)'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근에 살고 있어 산책을 겸해서(85, 10.84%)', '자연을 체험하기 위하여(79, 10.08%)'로 나타나 대부분이 건강 관련 목적이거나 자연의 감상 및 체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4. 만족도

대상지 구간별 만족도 조사 결과, '충의길(1.77)'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평균점수인 4점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이용객들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큰 불만 없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구간은 '흰구름길(5.9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순례길(5.62)', '솔샘길(5.47)'이 높게 나타났다.

길 주변으로 자연성이 높은 구간들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창마을길', '충의길'과 같이 마을을 통과하거나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인공적 요소가 강한 구간들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솔샘길'과 '마실길'은 인공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구간이지만 공원 주변의 주거지와 인접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운동 및 산책을 겸해서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표 13 참조).

탐방편의성은 구간의 전체 만족도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순례길(4.18)', '흰구름길(4.66)', '솔샘길(4.88)', '명상길(4.53)', '옛성길(4.31)', '구름정원길(4.17)' 6개 구간만이 평균점수와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7개 구간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보행쾌적성은 '평창마을길(3.60)', '충의길(1.47)' 2개 구간만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11개 구간은 평균보다 높게

표 1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39	58.7
	여성	168	41.3
연령	10대	9	2.2
	20대	45	11.1
	30대	40	9.8
	40대	96	23.6
	50대	148	36.4
	60대	50	12.3
	70대 이상	19	4.7
직업	자영업	93	22.9
	회사원	101	24.8
	전문직	41	10.1
	공무원	22	5.4
	주부	78	19.2
	학생	25	6.1
	기타	47	11.5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320	78.6
	경기도	75	18.4
	인천광역시	11	2.7
	기타	1	0.2

표 12. 방문목적 빈도분석 결과

방문목적	빈도	비율(%)
등산 목적으로 왔다가 우연히	91	11.61
걷는 길 열풍으로 인한 호기심으로	36	4.59
등산은 어려워서 운동하기 위하여	90	11.48
인근에 살고 있어 산책을 겸해서	85	10.84
자연을 체험하기 위하여	79	10.08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기 위하여	98	12.50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67	8.55
걸으면서 지역의 문화를 느끼기 위하여	30	3.83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을 체험하기 위하여	24	3.06
가족/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62	7.91
동료들과 단합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58	7.40
자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21	2.68
단순히 자연에 가까이 접촉하기 위하여	40	5.10
기타	3	0.38
계	784	0.00

* 응답자 중복 응답

나타나 길의 포장형태 및 주변의 경관요소가 인공적인 구간이 숲속으로 노선이 형성되어 자연성이 높은 구간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험연속성은 '흰구름길(4.31)', '솔샘길(4.38)', '옛성길(4.44)',

표 13. 대상지 구간별 만족도

구간	구분	만족도	탐방 편의성	보행 쾌적성	체험 연속성	자연환경보전	접근성
소나무 숲길	평균	5.03	3.81	4.81	3.94	4.68	4.77
	표준편차	1.581	1.869	1.621	1.711	1.351	1.668
	표본수	31	31	31	31	31	31
순례길	평균	5.62	4.18	4.56	4.00	4.50	4.85
	표준편차	1.155	1.585	1.460	1.651	1.441	1.654
	표본수	34	34	34	34	34	34
흰구름길	평균	5.97	4.66	5.60	4.31	4.94	5.77
	표준편차	0.954	1.589	1.218	1.623	1.282	1.308
	표본수	35	35	35	35	35	35
솔샘길	평균	5.47	4.88	5.25	4.38	5.09	5.34
	표준편차	1.164	1.476	1.391	1.431	1.329	1.285
	표본수	32	32	32	32	32	32
명상길	평균	5.25	4.53	4.56	4.00	4.78	5.19
	표준편차	1.646	1.704	1.435	1.414	1.773	1.554
	표본수	32	32	32	32	32	32
평창 마을길	평균	4.60	3.57	3.60	3.63	4.07	4.10
	표준편차	1.499	1.357	1.522	1.402	1.721	1.788
	표본수	30	30	30	30	30	30
옛성길	평균	5.28	4.31	4.66	4.44	4.41	5.09
	표준편차	1.326	1.615	1.335	1.318	1.682	1.279
	표본수	32	32	32	32	32	32
구름정원길	평균	5.07	4.17	4.83	4.17	4.37	5.07
	표준편차	1.507	1.763	1.315	1.533	1.426	1.530
	표본수	30	30	30	30	30	30
마실길	평균	5.06	3.48	4.61	3.45	4.06	4.65
	표준편차	1.526	1.930	1.498	1.650	1.526	1.427
	표본수	31	31	31	31	31	31
내시묘역길	평균	5.23	3.73	4.97	4.23	4.83	5.13
	표준편차	1.591	1.617	1.217	1.675	1.147	1.502
	표본수	30	30	30	30	30	30
효자길	평균	4.77	2.50	4.10	3.80	4.43	4.60
	표준편차	1.736	1.480	1.296	1.270	1.223	1.734
	표본수	30	30	30	30	30	30
충의길	평균	1.77	1.30	1.47	1.67	1.90	2.37
	표준편차	0.935	0.651	0.819	1.061	1.062	1.245
	표본수	30	30	30	30	30	30
우이령길	평균	4.80	3.83	4.67	3.70	4.67	4.57
	표준편차	1.157	1.315	1.213	1.236	0.959	1.406
	표본수	30	30	30	30	30	30

‘구름정원길(4.17)’, ‘내시묘역길(4.23)’ 5개 구간만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 구간은 평균과 같거나 낮게 조사되어 노선 전체적으로 볼거리, 체험거리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보전 및 접근성은 ‘충의길(1.90, 2.37)’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구간에서는 모두 평균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구간별 만족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자연을 느낄 수 있다(137)’, ‘걷기에 쾌적하다(137)’, ‘자연 속에 있어서 좋다(119)’, ‘운동이 되는 것 같다(117)’, ‘걷기에 편안하다(96)’ 가 높게 나타났다. ‘순례길’, ‘흰구름길’ 등 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면서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구간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계획요소에서도 ‘보행쾌적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표 14 참조).

구간별 불만족 이유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91)’, ‘체험거리가 없다(62)’, ‘볼거리가 없다(59)’ 가 높게 조사되었다. 방문목적에서 이용객들이 건강 목적 및 자연을 느끼고 감상하기 위해서 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구간별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적절한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산림휴양 이외에 자원과 연계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가 없다는 것은 이용객들의 불만요인으로 나타났고, 계획요소 중 ‘탐방편의성’과 ‘체험연속성’이 구간 전체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표 15 참조).

대상지 13개 구간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숲속길(5.37)’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능선길(5.28)’, ‘언저리길(5.27)’, ‘마을길(4.84)’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도로길(3.27)’은 평균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16 참조).

‘숲속길’, ‘언저리길’, ‘능선길’은 탐방편의성, 보행쾌적성, 체험연속성, 자연환경보전, 접근성 5개 요소 전부에서 평균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지만, ‘마을길’은 탐방편의성, 체험연속성에서만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길’은 모든 요소에서 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성이 높은 길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자연에 가까이 접하여 자연을 느끼고 싶어 하는 이용객이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자연과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연과 가까이 접근시키기 어려울 경우,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길 주변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계획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구간별 만족도와 계획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탐방 편의성은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명상길’, ‘충의길’에서 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보행쾌적성은 ‘소나무숲길’, ‘순례길’, ‘흰구름길’, ‘명상길’, ‘평창마을길’, ‘옛성길’, ‘구름정원길’, ‘마실길’, ‘효자길’, ‘충의길’ 10개 구간에서 0.0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험연속성은 ‘소나무숲길’ 등 7개 구간, 자연환경보전은 ‘순례길’ 등 6개 구간, 접근성

표 14. 구간별 만족이유 빈도분석 결과

구분	소나무 숲길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명상길	평창마을길	옛성길	구름정원길	마실길	내시묘역길	효자길	충의길	우이령길	계
볼거리가 다양하다.	3	3	3	1	2	5	0	1	0	0	0	0	0	18
체험거리가 다양하다.	2	3	0	2	1	1	1	1	1	1	0	0	0	13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5	3	1	1	0	7	0	1	2	1	0	1	2	24
자연을 느낄 수 있다.	13	12	13	14	15	9	10	12	13	8	13	1	4	137
걷기에 쾌적하다.	13	14	11	16	9	3	17	11	10	12	10	2	9	137
걷기에 편안하다.	8	11	10	9	5	2	6	2	7	7	13	3	13	96
운동이 되는 것 같다.	11	11	9	14	10	8	7	13	7	9	12	4	2	117
자연속에서 있어서 좋다.	12	13	9	14	13	3	9	6	13	9	11	0	7	119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서 조성했다.	2	5	2	6	3	2	3	2	2	3	3	0	1	34
접근이 용이하다.	13	8	4	11	2	4	4	4	7	5	5	5	3	75
주변 다른길과 잘 연결되어 있다.	7	8	4	6	7	5	5	2	3	7	4	0	3	61
기타	1	1	1	0	1	0	0	0	0	0	0	0	0	4
계	90	92	67	94	68	49	62	55	65	62	71	16	44	835

표 15. 구간별 불만족이유 빈도분석 결과

구분	소나무 숲길	순례길	흰구름길	솔샘길	명상길	평창마을길	옛성길	구름정원길	마실길	내시묘역길	효자길	충의길	우이령길	계
볼거리가 없다.	3	2	2	4	0	2	4	3	4	5	9	14	7	59
체험거리가 없다.	1	8	6	2	2	5	1	4	5	5	8	9	6	62
지역의 문화를 느끼기 힘들다.	2	1	3	4	1	3	3	2	2	2	4	4	2	33
자연을 느끼기 힘들다.	1	0	0	2	0	1	1	0	1	1	4	13	0	24
걷기에 쾌적하지 않다.	4	1	1	0	3	5	0	1	1	0	3	15	0	34
걷기에 불편하다.	1	0	0	0	3	9	2	1	1	0	4	14	0	35
길 주변으로 경관저해 시설이 많다.	5	5	1	2	1	0	4	3	5	3	5	11	1	46
접근이 불편하다.	0	0	0	0	1	4	0	1	1	1	2	5	2	17
길 조성으로 환경훼손이 심하다.	2	3	0	0	1	1	3	5	4	2	4	2	1	28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3	5	2	2	9	5	6	5	7	4	10	18	15	91
주변길과 연결되지 않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	4	1	2	2	0	3	1	4	3	1	4	10	5	40
기타	7	0	3	2	1	4	1	2	0	4	1		0	25
계	33	26	20	20	22	42	26	31	34	28	58	115	39	494

표 16. 대상지 유형별 만족도

구간	구분	만족도	탐방 편의성	보행 쾌적성	체험 연속성	자연환경 보전	접근성
숲속길	평균	5.34	4.14	4.87	4.04	4.73	5.06
	표준편차	1.401	1.642	1.403	1.557	1.345	1.551
	표본수	192	192	192	192	192	192
언저리길	평균	5.27	4.53	5.05	4.27	4.74	5.21
	표준편차	1.345	1.647	1.360	1.473	1.413	1.404
	표본수	62	62	62	62	62	62
능선길	평균	5.28	4.31	4.66	4.44	4.41	5.09
	표준편차	1.326	1.615	1.335	1.318	1.682	1.279
	표본수	32	32	32	32	32	32
마을길	평균	4.84	3.52	4.11	3.54	4.07	4.38
	표준편차	1.519	1.659	1.582	1.523	1.611	1.624
	표본수	61	61	61	61	61	61
도로길	평균	3.27	1.90	2.78	2.73	3.17	3.48
	표준편차	2.049	1.285	1.708	1.582	1.709	1.873
	표본수	60	60	60	60	60	60

은 '소나무숲길' 등 4개 구간에서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7 참조).

대상지의 유형별 만족도와 계획요소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숲속길'과 '도로길'은 5개 계획요소 모두와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언저리길'은 접근성을 제외한 4개 계획요소, '능선길'은 보행 쾌적성과 자연환경보전, '마을길'은 보행쾌적성, 체험연속성, 접근성에서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8 참조).

계획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탐방편의성'과 '접근성'은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요소로 조사되어, 두 요소를 제외한 '보행쾌적성', '체험연속성', '자연환경보전'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 값이 0.513으로 나타나, 계획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은 5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요소 중 보행쾌적성(0.510)이 체험연속성(0.179)이나 자연환경보전(0.136)보다

표 17. 구간별 만족도와 계획요소간 상관관계 분석

구간	구분	탐방 편의성	보행 쾌적성	체험 연속성	자연환경 보전	접근성
소나무 숲길	상관계수	0.239	0.835**	0.457**	0.380*	0.585**
	유의확률	0.195	0.000	0.010	0.035	0.001
	표본수	31	31	31	31	31
순례길	상관계수	0.452**	0.508**	0.572**	0.519**	0.319
	유의확률	0.007	0.002	0.000	0.002	0.066
	표본수	34	34	34	34	34
흰구름길	상관계수	0.439**	0.547**	0.310	0.023	-0.100
	유의확률	0.008	0.001	0.070	0.897	0.569
	표본수	35	35	35	35	35
솔샘길	상관계수	0.655**	0.304	0.317	0.096	0.191
	유의확률	0.000	0.091	0.077	0.602	0.296
	표본수	32	32	32	32	32
명상길	상관계수	0.549**	0.608**	0.554**	0.495**	0.107
	유의확률	0.001	0.000	0.001	0.004	0.559
	표본수	32	32	32	32	32
평창 마을길	상관계수	0.285	0.562**	0.535**	0.318	0.196
	유의확률	0.127	0.001	0.002	0.087	0.300
	표본수	30	30	30	30	30
옛성길	상관계수	0.379*	0.458**	0.407*	0.482**	0.117
	유의확률	0.032	0.008	0.021	0.005	0.523
	표본수	32	32	32	32	32
구름 정원길	상관계수	0.281	0.632**	0.592**	0.534**	0.222
	유의확률	0.132	0.000	0.001	0.002	0.238
	표본수	30	30	30	30	30
마실길	상관계수	-0.124	0.551**	0.266	0.299	0.562**
	유의확률	0.506	0.001	0.148	0.103	0.001
	표본수	31	31	31	31	31
내시묘역길	상관계수	0.320	0.449*	0.497**	0.211	0.347
	유의확률	0.085	0.013	0.005	0.263	0.060
	표본수	30	30	30	30	30
효자길	상관계수	0.195	0.685**	0.697**	0.650**	0.174
	유의확률	0.303	0.000	0.000	0.000	0.357
	표본수	30	30	30	30	30
충의길	상관계수	0.515**	0.507**	0.440*	0.566**	0.579**
	유의확률	0.004	0.004	0.015	0.001	0.001
	표본수	30	30	30	30	30
우이령길	상관계수	0.408*	0.442*	0.415*	0.280	0.560**
	유의확률	0.025	0.014	0.023	0.134	0.001
	표본수	30	30	30	30	30

*: 5%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 결과 유의성 있음
 **: 1%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 결과 유의성 있음

표 18. 유형별 만족도와 계획요소간 상관관계 분석

구간	구분	탐방 편의성	보행 쾌적성	체험 연속성	자연환경 보전	접근성
숲속길	상관계수	0.411**	0.585**	0.472**	0.340**	0.349**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표본수	192	192	192	192	192
언저리길	상관계수	0.451**	0.486**	0.475**	0.366**	0.221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3	0.085
	표본수	62	62	62	62	62
능선길	상관계수	0.379*	0.458**	0.407*	0.482**	0.117
	유의확률	0.032	0.008	0.021	0.005	0.523
	표본수	32	32	32	32	32
마을길	상관계수	0.035	0.570**	0.371**	0.304*	0.377**
	유의확률	0.791	0.000	0.003	0.017	0.003
	표본수	61	61	61	61	61
도로길	상관계수	0.500**	0.845**	0.801**	0.824**	0.597**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표본수	60	60	60	60	60

*: 5%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 결과 유의성 있음
 **: 1%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 결과 유의성 있음

높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보행쾌적성이 만족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9 참조).

이는 정휘와 양병이(2008)의 연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중요도 평가 설문조사에서 생태적 민감지역 보호와 기존노선 활용이라는 자연환경보호와 관련한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가 생태탐방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경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여겨지며, 본 연구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용객들이 보행시 직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쾌적함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6.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간별 만족도와 재방문의사/추천의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0.01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례길'의 만족도와 재방문의사, '내시묘역길'의 만족도와 추천의사는 0.05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샘길'의 추천의사, '내시묘역길'

표 19. 계획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	비표준화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결정계수 (R ²)	
	회귀값	표준오차	베타(β)				
만족도	(상수)	1.386	0.189	-	7.348	0.000	0.513
	보행쾌적성	0.510	0.050	0.501	10.151	0.000	
	체험연속성	0.179	0.050	0.172	3.572	0.000	
	자연환경보전	0.136	0.049	0.129	2.793	0.005	

표 20. 만족도와 재방문/추천의사의 상관관계 분석

구간	구분	재방문	추천의사
소나무숲길	상관계수	0.882**	0.728**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1	31
순례길	상관계수	0.391*	0.567**
	유의확률	0.022	0.000
	표본수	34	34
흰구름길	상관계수	0.434**	0.593**
	유의확률	0.009	0.000
	표본수	35	35
솔샘길	상관계수	0.587**	0.137
	유의확률	0.000	0.454
	표본수	32	32
명상길	상관계수	0.551**	0.571**
	유의확률	0.001	0.001
	표본수	32	32
평장마을길	상관계수	0.705**	0.689**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0	30
옛성길	상관계수	0.713**	0.535**
	유의확률	0.000	0.002
	표본수	32	32
구름정원길	상관계수	0.867**	0.838**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0	30
마실길	상관계수	0.749**	0.715**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1	31
내시묘역길	상관계수	0.359	0.385*
	유의확률	0.051	0.036
	표본수	30	30
효자길	상관계수	0.718**	0.724**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0	30
충의길	상관계수	0.785**	0.718**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0	30
우이령길	상관계수	0.814**	0.826**
	유의확률	0.000	0.000
	표본수	30	30

*: 5%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 결과 유의성 있음
 **: 1% 유의수준에서 양측검증 결과 유의성 있음

표 21. 만족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모형	비표준화회귀계수		표준화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결정계수 (R ²)	
	회귀값	표준오차	베타(β)				
재방문 의사	(상수)	0.783	0.186	-	4.204	0.000	0.577
	만족도	0.839	0.036	0.759	23.487	0.000	
추천 의사	(상수)	0.827	0.193	-	4.289	0.000	0.556
	만족도	0.833	0.037	0.746	22.532	0.000	

의 재방문의사는 0.05 유의수준 이하에서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만족도가 재방문 및 타인에게 추천하는 의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²) 값이 0.577, 0.556로 나타나 만족도가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모형은 57.7%,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의사에 대한 영향 모형은 5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재방문 및 타인 추천 의사에 있어 0.839, 0.833으로 높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방문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길의 쾌적성 향상 등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거나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표 21 참조).

7. 테마의 인지

대상지 구간별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테마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모든 구간에서 '산림휴양', '자연탐방'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계획 시 설정한 테마와 이용객이 인지하는 테마는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선이 공원 내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구간별 불만족 이유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볼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 측면에서 구간별 차이를 쉽게 인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산림휴양'으로 응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계획가와 이용객과의 인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향후 걷고 싶은 길 조성 시 주변 자원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하여 구간별, 노선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걷고 싶은 길은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느리게 살기 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관광 및 휴양 형태로 이어지면서 관심은 점점 증대될 것이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길들을 계속적으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산 둘레길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 동기, 구간 및 계획요소에 대한 만족도, 재방문 및 추천 의사, 테마의 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걷고 싶은 길 조성 시

표 22. 대상지 구간별 테마 인지도 빈도분석

구간	계획(안) 테마	자연탐방	산림휴양	역사문화	경관조망	전원레저	마을활성화	없다
소나무숲길	산림휴양/경관조망	8	21	4	4	0	1	3
순례길	역사문화	16	11	4	3	0	7	0
흰구름길	산림휴양	6	23	1	7	0	1	2
솔샘길	역사문화	6	18	1	5	4	5	2
명상길	자연탐방	11	23	0	4	2	0	1
평창마을길	경관조망	3	4	7	6	1	6	4
옛성길	경관조망	13	12	2	5	1	3	1
구름정원길	산림휴양/경관조망	12	9	0	8	2	1	2
마실길	역사문화	9	20	2	3	0	1	2
내시묘역길	경관조망/마을활성화	10	16	2	3	2	1	3
효자길	역사/전원레저	10	19	1	3	2	1	1
충의길	자연탐방/전원레저	2	0	2	4	0	6	16
우이령길	자연탐방/경관조망	11	15	1	3	0	0	2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도는 자연적 요소가 강한 구간이 인공적 요소가 강한 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숲속길, 언저리길, 능선길이 마을길이나 도로길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족 이유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의 응답이 높은 것과 같이 노선 선정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 숲속길 중심으로의 노선 선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인공적 요소가 강한 구간의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녹화, 녹지대 조성 등 자연요소를 최대한 도입하여 자연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만 이유로 ‘볼거리가 없다’, ‘체험거리가 없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처럼 노선 선정 시 주변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건강, 산림휴양이라는 목적 이외에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화장실,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을 적절히 조성해준다면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개의 계획요소 모두가 만족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보행쾌적성’이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계획요소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선 선정 시 경사, 노면의 재질, 주변의 자연요소 등 길을 걸으면서 이용객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만족도가 재방문 의사 및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의사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많은 새로운 이용객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통하여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각 구간 및 노선별로 설정한 테마와 이용객이 인지하는 테마는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걷고 싶은 길이 전국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길의 차별화를 추구하기 위해

서는 지역의 대표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지역만의 고유한 길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산 둘레길은 자연환경의 보전 측면에서 정상 정복위주의 등산객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 강하였고, 실제 이용객도 건강 관련 목적의 기존 등산 이용객이 많은 만큼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유형의 걷고 싶은 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선행연구에서 노선 선정 시 고려한 계획요소들이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그 중 보행쾌적성이 만족도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현재 지정 및 조성되어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 길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길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인용문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1999) 국립공원 자연학습탐방 프로그램 및 자연해설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 권태호(2010) 가야산국립공원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 평가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4(3): 293-301.
3. 김상범, 최자운, 정대영, 김은자(2010) 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길 조성 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17(3): 587-606.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 서울시 생태관광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방안.
5. 심규원, 이주희, 나혜현(2010) 팔공 울레의 방문동기·만족도·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4(3): 21-28.
6. 심현남(2011) 안동시 낙동강유역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유기준, 권태호(2004)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에 대한 이용객 인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18(4): 437-445.
8. 유기준, 조우, 조근식(2008)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지역 탐방로 보행시설에 대한 탐방객 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2(2): 145-151.
9. 윤인용, 양병이, 문수영, 장대희(2010) 지역단위 생태문화탐방로 노선 선정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0(1): 233-237.
10. 이승주, 한봉호, 강현경, 이수동, 김상범(2009)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곡리 여산팔경 마을 생태탐방로 노선설정 방안 연구. 농촌계획 15(3): 61-79.

11. 전북발전연구원(2008) 생태·문화탐방로 지역단위계획을 위한 기본모형 연구.
12. 전북발전연구원(2009a)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방안 및 선정노선의 특성분석.
13. 전북발전연구원(2009b) 스토리가 있는 전라북도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방안.
14. 정휘, 양병이(2008) 광역 탐방로 노선설정을 위한 계획요소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6(5): 35-41.
15. 제주관광공사(2010) 제주 올레길 이용객 실태조사 보고서.
16. 조우, 김지석, 김종엽, 이경재(2009a)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의 생태적특성을 고려한 탐방로 조성방안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2): 111-114.
17. 조우, 유기준, 최송현(2009b)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숲길 보행시설에 대한 이용객 평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1): 78-89.
18. 조은경, 한상열, 유리화, 김재준(2009) 지리산길 조성에 따른 산촌지역 주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3(4): 1-11.
19. 한봉호, 최진우, 유기준, 노태환(2010)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조성계획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 193-197.
20. 환경부(2007) 전국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
21. 환경부(2008)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
22. <http://www.moleg.go.kr>
23. <http://www.me.go.kr>

원 고 접 수 일: 2011년 7월 11일
 심 사 일: 2011년 8월 10일(1차)
 2011년 8월 23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1년 8월 24일
 3 인 익 명 심 사 필